

##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

### 판 결

등본입니다.

2018. 6. 1.

법원주사 복 상 철



사 건 2017고정249 의료법위반

피 고 인 유승희

주거

등록

조미경

주거

등록

검 사 문종배(기소), 박영우(공판)

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(피고인 모두를 위하여)

담당변호사 송영섭

판 결 선 고 2018. 5. 3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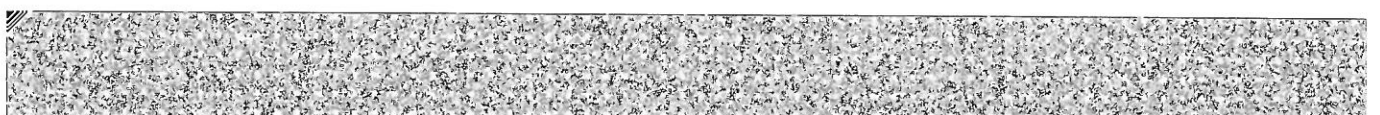
### 주 문

피고인들은 각 무죄.

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### 이 유

#### 1. 이 사건 공소사실





피고인 유승희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 658-8 '생협뜸방'이라는 뜸 동호회를 운영하는 자이고, 피고인 조미경은 위 동호회의 회원이다.

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. 그럼에도 한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들은 2017. 2. 17.경 위 생협뜸방에서 무릎 통증으로 찾아온 김남홍 등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뜸 시술을 하는 등 그 무렵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.

## 2. 피고인 유승희에 대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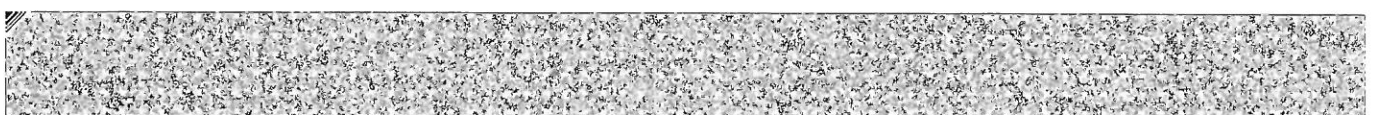
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유승희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김남홍 등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뜸 시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## 3. 피고인 조미경에 대한 판단

가.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, 검안, 처방,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(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).

나.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,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김남홍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, 그 외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그 내용과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(1) 피고인이 한 뜸 시술 방법은 쑥 등의 재료를 인체의 특정 부위에 원뿔 모양으





로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직접구 방식인데, 쌀알 반 정도 크기의 원뿔 모양의 뜸 쭉을 뜸 자리(경혈)에 놓고 태워 약 60 내지 70도의 열도로 가벼운 화상을 입혀 이때 발생하는 이종 단백질(히스토毒素)라는 물질을 통해 인체의 면역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. 뜸 쭉이 타는 시간은 1-2초 정도이고 동일부위에 3-5회 정도 실시한다.

(2) 이러한 쭉뜸 시술로 인해 최대 1도 정도의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이고 의도적으로 다른 자극을 주지 않거나 이내 연속해서 뜸을 며칠 뜨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정도로 보인다.

(3) 위와 같이 쭉뜸을 시술함에 있어 사용하는 기구(라이터, 향 등) 및 재료는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(4) 피고인 유승희는 1999년경 정통침뜸 평생교육원에서 1년 정도 김남수로부터 뜸을 뜨는 것을 배웠고, 그 후 귀농하여 지내다가 2008년 내지 2009년경부터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자 서로 뜸을 떠 주기 위하여 소수의 지역 주민과 함께 위 뜸방모임을 시작하였다. 그 후에는 마을 주민들 중 자발적 자원봉사자들이 주 1회 정도 시간에 내어 뜸방을 찾아오는 동네 어른들에게 뜸자리를 잡아 주고 뜸을 뜨거나 그들이 스스로 뜸을 뜨게끔 하였다. 뜸방모임에서 뜸방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고(여성농업인센터에서 일부 후원받음), 별도로 뜸을 떠 주는 대가로 돈을 받지 않는 아니하였다.

(5) 위 뜸방모임에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을 한 것이라거나 환자의 병증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시술 내용을 달리하였다는 등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, 또한 쭉뜸 시술을 함에 있어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였다는 자료 역시 찾





아볼 수 없다.

(6) 이처럼 위 쑥뜸 시술에 사용한 기구 및 시술 내용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술 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,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,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판사 안희길 \_\_\_\_\_

